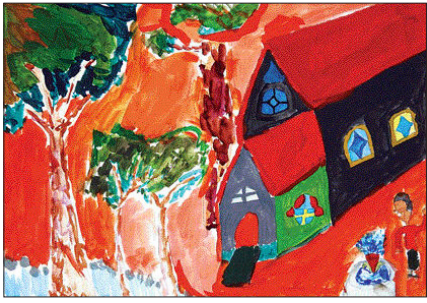


[호남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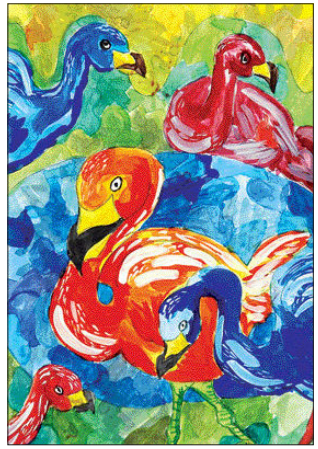
미술 최고상 수상작



초등부(1·2년) 주성률 <염주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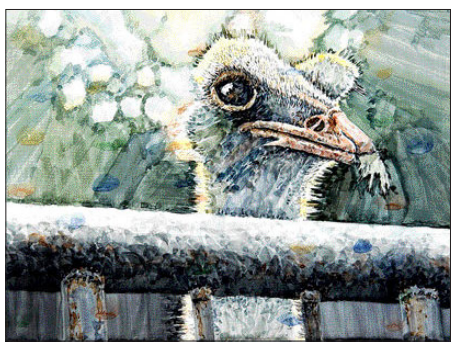
초등부(3·4년) 백성재 <화개초3>



초등부(5·6년) 이소민 <송원초6>



중등부 임슬기 <비아중3>



고등부 김민희 <광주여고2>

제51회 호남예술제 각 부문별 개인 최고상

미술					산문		시		논술		바이올린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중등부	중등부	중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성률 <염주초1>	백성재 <화개초3>	이소민 <송원초6>	임슬기 <비아중3>	김민희 <광주여고2>	박주연 <동아여중2>	강수빈 <광주예고2>	김성희 <월곡초5>	김지수 <인천청량중3>	김지수 <인천청량중3>	박강현 <주월중3>	박강현 <주월중3>	강수빈 <광주예고2>	
플루트			첼로		피아노		성악						
중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정유진 <동아여중2>	나유빈 <교대부실초6>	이채훈 <정암초2>	김슬 <군산산북초4>	구소현 <두암초6>	유빈 <익산아양중3>	오은지 <살레시오초4>	오은지 <살레시오초4>	윤소정 <송원초6>	윤소정 <송원초6>	박고은 <월계중2>	최은혜 <광주예고2>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국악기악		가야금병창		판소리	
고등부	고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고등부
김슬 <광주예고3>	이다애 <중앙여고3>	조아름 <광주예고2>	강은혜 <동아여중2>	이예리 <동아여고3>	박상언 <송원초6>	김호영 <광주예고3>	김호영 <광주예고3>	박소윤 <문산중3>	박소윤 <문산중3>	윤가영 <서진여고3>	윤가영 <서진여고3>	윤가영 <서진여고3>	윤가영 <서진여고3>

시 최고상 수상작

별

김성희 <광주월곡초 5>

학교 앞에서
산
셋노란 병아리

행여 엄마가 볼까
작은 상자에
고이 넣었지만

결구 죽어버린
노란 병아리

병아리가
죽은 밤
병아리의 죽음을 슬퍼하듯

조용히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기억난다

산문 최고상 수상작

성묘가던 날

박주연 <동아여중 2>

나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추석 바로 다음날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하여 딸만 4명을 가지셨던 까닭에 할머니댁의 명절은 항상 그 다음날이었다. 그날도 어느 명절 연휴와 다를 없었다. 추석 다음날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아침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일어나 외할머니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다.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웬 전화나 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수화를 하셨다. 그 전화 한 통은 우리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외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올 것이라며 과수원에서 오시던 도중에 돌아가신 것이다. 1년 후 추석날 저녁에 성묘를 갔다. 그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와서 가는 길도 힘들었다. 할

아버지께서 소중히 아끼시던 감나무 과수원에 잠드셨다. 1년 사이 묘의 잔디는 많이 자라있었다. 과수원을 지키는 개도 여전히 건강했다. 감나무도 여전히 튼튼했고 커다랗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막걸리를 좋아하셨다 하시면서 할머니께서 묘 앞에 막걸리를 놓으셨다. 사촌동생들은 성묘를 지내고 남은 과일들을 먹으며 까불어댔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다. 비 때문이었을까 그날 내 마음이 그렇게도 울적했던 이유는. 할머니는 묵묵히 잔디를 쓰다듬으셨다. 빗방울이 거친 할머니의 손등에 투둑하고 떨어졌다가 흘러내렸다. 동생들은 우산을 들고 장난을 치며 덜 익은 감을 따고 놀았지만 나는 어머니의 꼭 다문 입술이 너무 슬퍼보여 가만히 서있었다. 어른들께서는 아무

런 말씀도 없으셨다. 다만 동생들의 재잘거림만이 빗물을 타고 흘러갈 뿐-

할아버지의 과수원에는 밤도 있고 감도 있었다. 감이 나올 때가 되면 항상 할아버지께서 감을 한 상자씩 보내주셨다. 우리 집은 왜 감만 먹느냐면서 어머니께 투정을 부린 적도 많았다.

할머니댁에 가면 겨울에는 항상 밤을 삶아 주셨다. 가끔 벌레 먹은 밤도 있었지만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늦게 깨달은 것인지 할머니댁 탐방 옆의 빈 경운기를 보면 쓸쓸한 감정이 들곤 한다. 모내기철일 때면 그 털털거리는 경운기를 타고 논까지 가곤 했는데... 왜 이전엔 잘 헤드리지 못했을까.

여전히 비는 투둑거리며 내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길바닥도 내 마음도 진흙투성이인 채 질척거렸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감나무의 잎들이 흔들렸다.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맺힌 감이 보였다.

우리가 과수원에 갈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소매로 땀을 닦아 내린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서 계셨다.

논술 최고상 수상작

<본선 논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로 세계최저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는 국가의 존폐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학력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십시오.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 하나만 남아 잘 기르자였던 때가 있었다. 농경사회의 구조 때문에 육남매씩 줄줄이 낳아 기르던 시절이 대체 있긴 있었는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얼마 전 1.08%로 세계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최상의 속도로 최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출산율은

김지수 <인천청량중 3>

이미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자원이고 땅이고 없고, 있는 건 인력뿐이라는 우리나라의 그림동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저하되면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즉 경제가 침체되고 혼란에 빠진다. 열사람이 저어야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사람이 다섯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배는 자연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 몇십년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한 놀라운 경제성장을 꾀해왔었다.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학력이 크게 늘었고 서구식 가치관의 유입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강박도 점차 사라졌다. 독신도 늘었으며 결혼후에도 늦게 아이를 갖거나 아예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는 가치관의 변화가 그 이유였다.

또 다른 이유에는 미흡한 육아정책과 사교육비의 부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가정이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줄 시설도 부족하고 육아비에 대

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탓이다. 직장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정도로 몰입양면 지원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아니고, 불분명한 노후정책과 직장의 정년 보장문제로 집안 가계가 어려워진 탓도 적잖다. 이렇듯 출산이라는 문제는 원인과 피해가 광범위하다. 해결책 역시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로 유명한 프랑스의 복지정책은 실업, 퇴직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되어있어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고 질 좋고 싼 국립보육시설의 보급도 높아 성공적인 저출산대책이라 하겠다. 출산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현 출산관련 예산에 3배가 넘는 돈을 저출산대책에 쓴다고 한다.

우리도 여러 성공적인 사례를 보인 외국의 정책을 도입하여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교육비등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불안한 고용과 노후 정책들을 해결하고 육아지원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중산층까지 넓혀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출산에 대한 공익광고, 홍보를 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확립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얼마 전 한 기업에서 기업내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둘째 딸의 출산으로 회사에서 육아휴가를 받아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과 기업은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할 때 아이들의 손으로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다.

종합최고상·우수상

- ▲종합 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동아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 ▲종합 우수상
살레시오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지도교사상 수상자

- ◆ 음악
강상희 <광주예술고>
김경돈 <전남예술고>
김은진 <광주동성여자중>
김희정 <광주서초>
서윤희 <동림초>
서준호 <살레시오초>
오성균 <광양제철초>
윤산민 <광주송원초>
최수연 <정암초>

- ◆ 국악
김공순 <강진병영초>
김희숙 <진도실업고>
선영남 <장성월평초>
양병완 <순창북중>
이영주 <광주송원초>
최창준 <광양제철남초>

- ◆ 무용
강유나 <광주송원초>
곽혜경 <담양남초>
김기숙 <대성여자중>
김영순 <유안초>
김옥영 <동아여자중>
송명숙 <화순초>
이수미 <광주수피아여자고>
장덕인 <조선대학교여자중>
조경숙 <동아여자고>

- ◆ 미술·작문
김소영 <운리초>
김영심 <염주초>
김희영 <유덕초>
윤선미 <문흥중앙초>
김경옥 <광주여자고>
정미림 <화개초>
이영숙 <신암초>
박영숙 <담양한계초>
김정은 <월곡초>
조창모 <동아여자중>